

영어 예배 지난 주일 처음으로 드러져 3개월에 걸친 기도와 착실한 준비의 결실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러진 공식 영어예배가 지난주 부활주일 3월 27일에 있었다. 이 영어 예배는 영어예배 사역팀의 3개월에 걸친 기도와 준비의 결실이다. 영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1층에 있는 제3 집회실에서 계속 열릴 예정이다. 영어 예배는 교육부를 담당하는 홍민기 목사와 나현수 전도사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1.5 세대들이 함께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영어예배 사역팀에서는 앞으로 소그룹 영어 성경공부와 제자훈련과 여러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지난주 첫 예배에는 87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옆방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자리를

메꿀만큼 첫 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다. 아름다운 영어 찬양과 적극적인 섬김을 통해 영어 예배 시간을 은혜로채운 귀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 여호수아반 양육 클래스 소개

지난 주일(27일)부터 올해 봄 학기 양육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진 여호수아 강해반은 지난주 목요일(31일) 그 첫 모임을 가졌다. 인도는 박익일 전도사가 담당하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5층 찬양연습실이다.

(2면에서 계속)

제3기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 딘 셔먼 영적 전쟁 공개 강의 열려

제3기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딘 셔먼 영적전쟁 세미나를 가졌다. 딘 셔먼은 YWAM(국제 예수전도단) 열방 대학의 기독교 사역 분야의 책임자를 맡고 있으면서 지난 30년동안 전세계를 순회하며 영적 전쟁에 관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공개강좌로 열렸다. 세미나 기간 동안 영적 전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중매 배설을 가득 메웠고,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향해 기도하러 모인 중보 기도자들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뜨거운 열기 가운데 들어갔다. 딘 셔먼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영적전쟁에 관한 사실(fact)에 관해 자세하게 강의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중보 기도자들의 바쁜 손길과 섬김은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기에 충분했다.

오클랜드 주님의교회 입당 9년전창립,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주님의교회가 오늘 예배 당과 새전물을 구입 후 입당하게 되어, 담임목사와 이인호목사, 양동훈장로, 이영자장로, 김경신장로 등이 당회대표로 참석하기로 하고 출국하였으며, 입당예배는 담임목사가 설교하기로 하였다. 오클랜드 주님의교회는 우리교회 부목사였던 김화수 목사가 섬기고 있으며, 1994년 창립하였고, 우리교회에서 1년간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여 우리교회와는 깊은 연관이 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 힘쓰는 교회이다. 지난해 김화수목사가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입당소식을 알렸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교회에서 꼭 입당예배에 참석하여 주기를 부탁한 바 있다. 방문단은 4월1일 출국하였으며, 4일 입국할 예정이다.

동행의 삶

양육 클래스 예레미야서반 소개

이 클래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두 번 진행된다.

유소년축구클럽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운동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4기 유소년 축구 클럽이 3월 13일 출범했다.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오래 기다린 만큼 회원 수도 많이 늘었다. 이번 학기는 전체 16주에 걸쳐 축구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유치부가 신설되어 눈길을 끌었다. 아직은 엄마 품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운동장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교사의 말씀을 잘 따르며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귀엽기까지 하다.

초등부 4개조와 중등부 역시 열심히 뛰며 운동하는 모습이 활기차다. 유소년축구클럽에서 교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운동장에서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1시 20분까지는 운동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이 이동주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을 그냥 방치해 놓은 관계로 아이들이 운동장을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해 다니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운동에 지장이 아주 많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결국 모두의 생각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맘껏 활발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라 생각하고 교우들의 사랑의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호스피스 사역팀 일일 수련회 다녀와

3월 26일 토요일 호스피스 사역팀에서 팡림 수도원으로 일일 수련회를 다녀왔다. 고난주간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낀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떠날 때부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팀원들 가운데 간절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는 길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후에는 수도원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으며 묵상기도를 드렸다. 담당 교역자인 이인호 목사의 말씀을 따라 “어찌하여”, “왜”를 반문하며 망루에 올라 응답을 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큰 소리는 없었지만 가슴은 뜨거운 기도 길이었다. 간단한 간식

과 함께 잠깐 휴식하고 다 같이 모여서 “너 거기 서있었는가”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역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들었고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더 힘차게 봉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힘차게 찬양을 부르면서 참석한 모든 이들은 성령과 은혜의 단비가 축축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더 훈련반 오픈

지난 3월 27일 4층 당회원실에서는 김성관 목사의 인도로 양육 클래스 리더 훈련 과정(주일반)이 시작되었다. 금년으로 제3기 훈련생을 맞는 리더 훈련 과정에서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자훈련은 그

리스도인의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큐티와 중요한 성경구절 암송, 그리고 성경 통독과 다양한 방법의 기도 훈련 등이 이뤄진다.

사역훈련으로는 사역함에 있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으로서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론과 일대일 양육 방법론, 그리고 소그룹 토의 성경공부 인도법 등을 배우게 되어 구역장으로 섬기거나 작은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때 필요한 방법과 기술들을 자세하게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 리더훈련 과정은 무엇보다 20주 가까운 시간동안 필수 참석과 시간 엄수, 그리고 각 단계마다 제시되는 과제물 제출 철저 등 학사 일

정이 매우 엄격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기 동안의 전례를 통해 볼 때 처음 몇 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훈련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잘 훈련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짐으로써 우리교회가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갈 것을 기대한다.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계속 기대한다.



목요모임

3월 31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특별목요모임 순서로 진행돼

지난 주 목요모임은 특별목요모임의 첫 시간으로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간사인 이병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미암아 얻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 첫 번째 축복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셨다는 것에서 말해준다. 고치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병 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약한 것도 고치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축복은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말라기 4장 2~3절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이 끊어지고 가능성과 영향력이 융암처럼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눌러있었던 자유가 외양간에 나오는 소처럼 뿜다는 것이다.

원수가 다시는 도전하고 회복을 얻을 수 없는 온전한 승리의 약속이다. 그러나 이런 축복에는 반드시 이유, 근원,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가 무엇인가? 경외는 말이 아닌 ‘보여지는 것’이다. 경외란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돌아보자. 정욕, 욕심, 환경이 대소사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세상의 것을 충분히 얻고 싶다면 먼저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경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은 순종까지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두사람의 순종에 의해 이방인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문화, 인종

을 초월해서 선민사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역사가 이들로 인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한다. 경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영화 ‘이집트왕자2’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소망을 잃었으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요 고백하는 장면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언어, 생각을 지키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욥기 1장 처음 소개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가 극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순종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30대 직장인과 주부를 위한 모임이 목요모임의 취지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목요모임예배가 열렸다.

3월 3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목요모임은 특별목요모임으로 이 세대에 맞는 강사들을 초청하게 된다. 4월 7일 목요모임은 IVF 학사회대표 이춘태 간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1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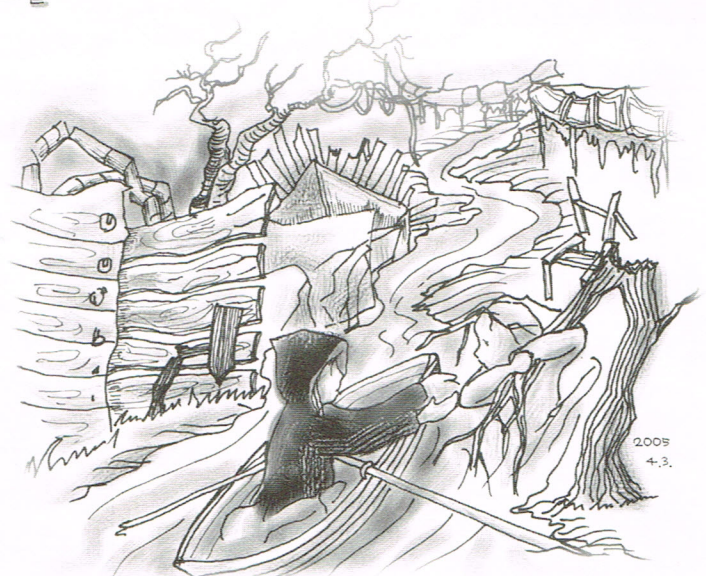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 여호수아 양육 클래스 소개

첫 모임이었지만 26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강의실 분위기는 매우 뜨겁고 주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았다. 강의 시작 전에 참석한 한 사람마다 자기소개와 함께 이 클래스를 선택한 이유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해 있었다. 이 클래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강의 전반부에 영적 전쟁에 관한 여러 참고 자료들을 정리하여 참석한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자신의 삶에

주 강해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강의하는 박의일 전도사의 열정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삶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갈망하는 성도들의 열정이 합쳐져 비록 첫 모임이었지만 벌써부터 강의실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양육 클래스는 4월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클래스에 참여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과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24장을 15주 커리큘럼에 맞춰 정해진 본문을 매

오늘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청년부

2005년 청년부

새로운 로고와 사역
비전 설정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주님의교회청년부

주님의 교회 청년부는 새로운 청년부의 CI를 멀티미디어 담당 간사인 한창호 간사와 함께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새로운 로고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구본은 글로벌 시대

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청년들을 세우는 비전이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구본 속에 채워진 비둘기 이미지가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Worship)와 지구본 위에 불타오르는 불꽃 이미지가 상징하는 부흥(R revival)과 세계 위에 타오르는 형상이 뜻하는 선교(Mission)의 비전을 나타내는 새로운 로고 이미지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 비전의 선포와 함께 "사역팀과 소그룹의 양 날개로 비상(비상)하는 청년부"로 올해의 주제를 정하고 10개 사역팀 체제의 안정과 연말까지 소그룹 양육 체제의 안정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목회 사역팀과 청년부 사역팀의 동역관계를 통해 한 사람의 목

회자 중심이 아닌 청년 리더십 중심의 사역을 추구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요청한다.

청년부 사역팀장
MT 가져

청년부는 2005년부터 임원 체제를 사역팀 체제로 전환 몇 사람의 임원들이 바쁘게 모든 일을 감당하던 체제에서 사역의 성격과 내용별로 10개 사역팀으로 나누어 함께 동역하는 사역팀 체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최상인 부장집사집에서 진행된 사역팀장 정기 MT는 사역팀간

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사역팀의 분명한 사역 분담, 사역팀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팀 리더십과 팀워크에 대한 나눔이 있었다.

청년부는 올해부터 사역팀과 소그룹의 두 시스템으로 청년부의 사역 활성화와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학교

방과후학교

복음을 전하는
부활절 달걀 만들어

부활 주일이었던 지난주일(27일)에는 방과후학교에서 준비한 '부활절 달걀' 전시가 2부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있었다.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이 부활절 달걀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이 열리는, 전날인 토요일, 선생님들과 미술반 학생들이 부활주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함께 만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과 저마다의 소망이 담겨있는 부활절 달걀의 전시가 끝난 직후 중등부학생들과 교사들은 달걀을 가지고 신천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 복음을 아름답게 전했다.



고등부 워십팀

A.S.K의 특송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고등부에서는 워십팀 A.S.K의 특송이 있었다. 작년까지 고3 형들이 많았으나 올해는 대부분 고1, 고2의 친구들로 구성된 워십팀 A.S.K는 구하라(Ask), 찾으라(Seek) 두드리라(Knock)는 의미를 담아 몸으로 찬양하고 있다.

스스로를 무대에서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내지만 그들이 결코 특별한 친구들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고 현실적인 학업 고민도 많은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매주 일정 정도의 시간을 내어 교회 한쪽 연습실에서 기쁘게 땀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

다. A.S.K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대환영!



“죽음과 부활 체험전”

“우와~ 무섭겠다.”, “앗싸!!”

초등부 전도사의 “죽음과 부활 체험전”에 대한 설명 후 터져 나온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호기심을 가득 안고 앞으로 체험할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아이들과, 약간은 무서워하는 반응을 가진 아이들은 모두 톡톡따라 눈으로 전도사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다. 모두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얼굴에 생기가 가득 했다. 그러한 아이들을 발그레한 표정을 보면서 교사들 역시 아이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될지 무척 궁금하다. 부활절을 맞아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 체험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부활절의 의미를 보고, 듣고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4가지 코스-무덤을 뚫고 나오기, 관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부활절” 삼행시 및 시 짓기 대회, 부활절 신문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네 가지 코스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체험한 후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후 아이들은 다양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이전보다 깊이 느껴보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하였다. 장난으로 참여한 아이들조차 이러한 체험들을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다. 바라기는 초등부 아이들이 부활절이 단지 교회에서 계란을 받고 가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그 참 의미를 잃어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것은 가장 귀중한 사건이기에, 그 만큼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되어 지기를 기도해본다.

부활절 성찬식

3월 27일 주일 레인보우는, 부활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졌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또한 죽음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떡을 떼셨던 것을 생각하며, 어린아이들도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간단하게 드러진 성찬식이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잘 아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을 그저 요술방망이 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신 분으로, 정말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나며,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다시 사신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유아부 인형극

'부활의 아침' 공연해

부활절을 맞아 유아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부활의 아침'을 공연하였다.

수탉, 돼지, 오리,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부활절을 알리는 닭으로 뿔뿔한 수탉이 뿔뿔하며 잘난척을 하자 다른 동물들이 샘을내며, 심술을 부렸으나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난 후 서로 힘을 합쳐 기쁨을 전하고 예수님께 찬양드린다는 내용이다.

교사들이 예쁜 인형으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자 아이들은 너무 기뻐하였고 공연이 끝난후에는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

2005년 1학기 양육클래스 안내

요일	과 목	시 간	장 소	강 사
주 일	제자의 삶 주일반(필수)	오후 1:30	(3층)소년부실	정영환
	리더훈련 주일반(필수)	오후 1:30	(4층)대회의실	김성관
	젊은 어머니학교	오후 1:30	(5층)중보기도실	문희곤
	세계의 흐름 속의 한국사회상황	오후 1:30	(4층)당회원실	이을형
	제2의 인생과 그리스도인	오후 1:00	(5층)상담실	남장희
	영어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오후 1:00	(5층)청년부1실	김영숙
	중국어성경	오후 1:30	(5층)청년부2실	김삼화
	사진학교	오후 1:30	(1층)유년부실	임근원
화	제자의 삶 화요일반(필수)	오전 10:00	(3층)초등부실	김성관
	리더훈련 화요일반(필수)	오후 7:30	(5층)청년부2실	윤은성
	하나님의 끝없는 짝사랑	오전 10:30	(5층)중보기도실	홍민기
	믿음의 여인들	오전 10:30	(5층)찬양연습실	이희숙
	영어성경공부	오전 10:30	(4층)당회원실	나현수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II	오후 1:00	(5층)찬양연습실	김광일
	말씀서예	오후 2:00	(지하)유치부실	박재현
	선교학교	오후 7:30	(4층)대회의실	권순영
목	리더훈련 목요일반(필수)	오전 10:00	(4층)당회원실	우동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여호수아)	오전 10:30	(5층)찬양연습실	박의일
	동행의 삶(예레미야)	오전 10:30	(5층)청년부2실	김현령
	화평과 겸(복음서)	오전 10:30	(3층)초등부실	이 호
	요한계시록연구	오후 7:30	(3층)초등부실	정희성
금	희망의 이야기(제20이사야)	오전 10:30	(지하)찬양연습실	이인호
	나의 성지를 찾아서	오전 10:30	(3층)초등부실	이창현
	일본어성경	오전 10:30	(4층)소회의실	신영숙
토	동행의 삶(예레미야)	오후 3:30	(5층)중보기도실	김현령

30대 사역 로고 제작

많은 것이 정해졌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일들, 무엇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안정됨이 편하기보다는 정해져 버린 일상이 오히려 낯선 지금, 이런 갑작스런 변화들 속에서 절실하게 내 마음이 구하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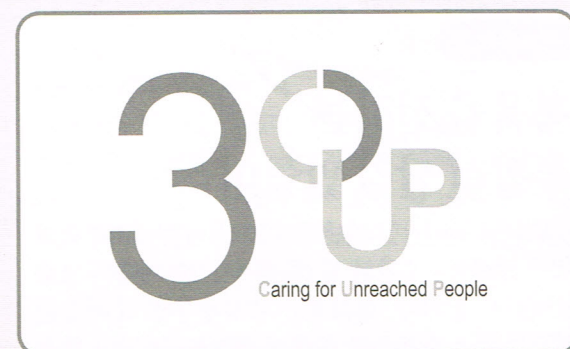
그건 바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웃고 울고, 공감했던 은혜를 나누던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이 CUP에 기쁨과 슬픔을 담아, 서로를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성숙한 열정과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30대를 시작하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30CUP”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 싸웠다. 잘 했다’ 칭찬 받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 임혜정 -



30CUP은 주님의교회 30대 사역의 이름으로 Caring for Unreached People의 각 첫 자를 이용해서 만든 이름이다. CUP의 의미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이름이 가지는 상형적인 이미지인 ‘컵’ (CUP) 역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막9:41)에서 그 의미를 찾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Mk9:41)

유치부 성극과 부활절 달걀 만들기 행사 가져

3월27일 부활주일을 맞아 유치부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유치부실에서 성극과 부활절 달걀 만들기 행사를 했다. "동물농장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성극을 준비했는데 네 분의 선생님이 동물 가면을 쓰고 열연을 해주셨다.

무엇보다 올해 처음으로 유치부를 섬기게 되신 신창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셔서 더 감사했고 선생님들의 새로운 달란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서로 부활의 기쁨을 알리겠다고 다투던 동물들이 결국에는 한데모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어린이들 전체가 일어나 모두 함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였다.

에 눈과 빨간 코를 붙이고 꼬갈 모자를 씌운 후에 예쁘게 장식된 종이컵에 넣어 뼈대로 모양을 만들었다. 자신이 열심히 만든 달걀을 부모님들 손에 건네주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모습이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1면에 이어서)

동행의 삶

양육 클래스 예레미야서반 소개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강의를 개설한 이유는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이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신앙적 양육을 돕기 위해서다.

담당 강사는 김현령 전도사이며, 구약 예레미야서와 오지 피터스의 '죽어 함께 달려가리이다'를 읽어가

며 예레미야의 인물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살펴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다. 목요일 장소는 5층 청년부 2실이며, 토요일 장소는 5층 중보기도실이다.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